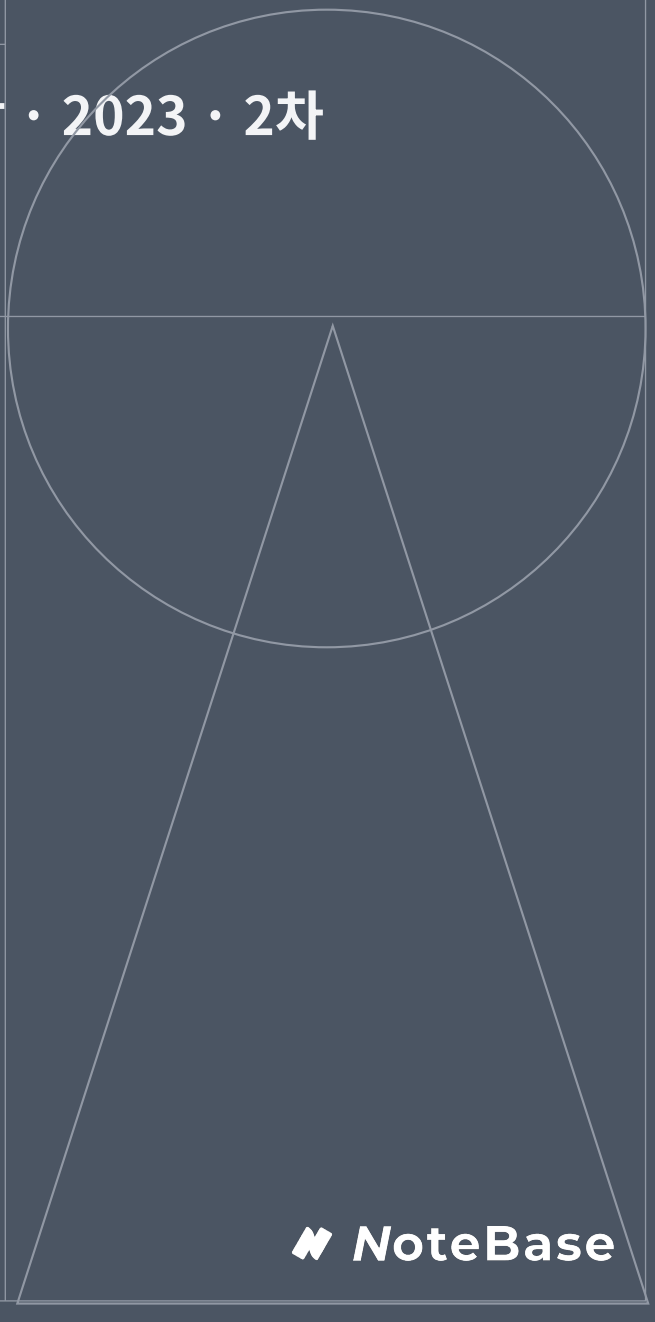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3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3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3 · 2차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② 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④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청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청약이 되려면 특정인에 대한 제안, 충분한 확정성, 승낙 시 구속의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승낙 시기 표시는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고 구속의사가 드러난 제안이다.
승낙은 그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CISG 제14조 제1항상 청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게 향하고, 충분히 확정적이며, 승낙이 있으면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반면 승낙의 시기나 승낙기간의 표시 자체는 청약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청약이 된다. CISG상 확정성은 적어도 물품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수량과 가격이 명시되거나 산정 가능해야 충족된다.

② X
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CISG상 청약 성립요건이 아니다. 승낙기간을 적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될 수 있다.
틀린 표현: "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올바른 표현: "승낙의 시기 표시는 필수요건이 아니며, 특정인에 대한 확정적 제안과 승낙 시 구속의사가 있으면 청약이 될 수 있다."

③ O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면 제안자가 그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섭 제안이나 정보제공과 청약을 가르는 기준이다.

④ O
CISG는 원칙적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게 한 제안을 청약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에게 한 광고나 일반적 표시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청약의 성립요건과 승낙기간의 기재 여부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②는 계약 실무에서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필수요건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상 청약 문제는 먼저 특정인 상대인지,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인지, 승낙 시 구속의사가 드러나는지를 본다. 그 다음 승낙기간 표시처럼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되는 요소를 필수요건과 구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CISG 청약은 특정인, 확정성, 구속의사이고 승낙시기 표시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NoteBase

문 2. 정기선 컨테이너화물의 부대운임 중 하주가 컨테이너 혹은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Demurrage
② Terminal Handling Charge
③ Port Congestion Surcharge
④ Detention Charg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기선 컨테이너 운송의 부대운임 중 터미널 내 체화와 터미널 밖 장비 반납 지연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emurrage는 컨테이너가 부두나 CY 등 터미널 안에서 무료장치기간을 넘겨 머무를 때 부과되는 비용이다.
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해 사용한 뒤 무료사용기간 내 반납하지 못할 때 운송업체에 내는 비용이다.
Terminal Handling Charge는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상하차·이동·적치 등 하역 처리비용이다.
Port Congestion Surcharge는 항만 혼잡으로 추가 운항비용이 발생할 때 붙는 할증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Demurrage는 터미널 안에서 컨테이너가 무료기간을 초과해 체화된 경우의 비용이다. 문제는 하주가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대여받아 반출한 뒤 정해진 시간 내 반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반납 지연 비용을 demurrage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터미널 내 장치 지연일 때 demurrage이다.

② X
Terminal Handling Charge는 컨테이너의 선적·양하·이동 등 터미널 작업에 대한 기본 하역비용이다. 반납 지연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반환 지연 비용을 THC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터미널 처리 작업비가 THC이다.

③ X
Port Congestion Surcharge는 항만 혼잡으로 선박 운영에 추가 부담이 생길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컨테이너나 트레일러의 반납 지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장비 반납 지연 비용을 항만혼잡할증료로 본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항만 혼잡 시 추가 운임이 PCS이다.

④ O
Detention Charge는 하주가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해 사용한 뒤 무료사용기간 안에 반납하지 못할 때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문제의 '대여받았을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반환하지 못하면'이라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Demurrage와 detention을 둘 다 지연료로만 외우면 쉽게 혼동된다. 구분 기준은 장소와 상태이다. 터미널 안에서 체화되면 demurrage이고, 터미널 밖으로 반출한 장비를 늦게 반납하면 detention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반출, 대여, 반환 지연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장비 사용 후 반납 문제이므로 detention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부두나 CY 안에서 컨테이너가 무료기간을 넘겨 머무는 상황이면 demurrage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터미널 안 체화는 demurrage, 터미널 밖 반납 지연은 detention이다.

NoteBase

문 3. 수출국이 수출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의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① Voluntary Export Restraints

② Tariff Quota

③ Countervailing Duties

④ Retaliatory Dutie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출보조금에 대응하는 상계관세와 다른 무역제한수단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Voluntary Export Restraints는 수출국이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출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키워드는 자율적 수출수량 제한이다.
Tariff Quota는 일정 수입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키워드는 물량구간별 차등관세이다.
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보조금으로 왜곡된 가격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이다. 키워드는 보조금 상쇄관세이다.
Retaliatory Duties는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보복관세이다. 키워드는 보복 대응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Voluntary Export Restraints는 수출국이 자기 쪽 수출물량을 줄이는 조치이므로 수입국이 보조금만큼 관세를 매기는 상황과 다르다.
틀린 부분은 보조금 대응 관세를 Voluntary Export Restraints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대응은 Countervailing Duties이다.

② X
Tariff Quota는 수입량 구간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보조금만큼 상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보조금 상쇄 목적의 관세를 Tariff Quota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Tariff Quota는 일정 물량까지 저율관세, 초과분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③ O
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 때문에 낮아진 수출가격 효과를 상쇄하려고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이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왜곡을 상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Retaliatory Duties는 상대국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의 관세이지, 수출보조금 액수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수한 무역구제관세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보조금 상쇄관세를 보복관세와 같은 것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보조금 대응은 Countervailing Duties이고, Retaliatory Duties는 일반적인 맞대응 관세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핵심어는 '보조금만큼'과 '상쇄'이다. 수량을 제한하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s, 물량구간별 관세인 Tariff Quota, 일반적 보복관세인 Retaliatory Duties를 비슷한 수입규제수단으로만 외우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 보조금, 덤핑, 수량제한, 물량구간 같은 기준어가 무엇인지 먼저 본다.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왜곡을 상쇄하기 위한 수입국의 관세이면 Countervailing Duties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조금 상쇄는 Countervailing, 물량 제한은 VER, 물량구간 차등관세는 Tariff Quota이다.

NoteBase

문 4.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이 인상되어 국내소비는 줄어든다.

② 관세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③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④ 관세부과로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 실업이 있을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관세부과가 가져오는 소비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수입효과, 고용증대효과의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효과는 관세로 국내가격이 올라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이다.
소득재분배효과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그 일부가 생산자 잉여와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되는 효과이다.
재정수입효과는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정부수입으로 귀속되는 효과이다.
고용증대효과는 관세로 국내생산이 늘 때 유휴노동이 있으면 고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효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고 수요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국내소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관세로 소비자 잉여가 줄고 그 일부가 생산자 잉여 증가와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되므로 소비자에서 생산자와 정부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③ O: 관세는 정부가 수입단계에서 징수하는 조세이므로 정부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본다.
④ O: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생산이 늘어날 수 있고, 국내에 실업이 존재하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소득재분배의 방향을 거꾸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관세의 핵심은 소비자 부담 증가이며, 그 부담의 일부가 국내생산자와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을 놓치면 정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 문제는 먼저 국내가격 상승 여부를 확인한 뒤 소비자, 생산자, 정부 가운데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방향으로 정리하면 된다. 가격 상승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와 정부수입은 증가하는 구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세는 소비 감소, 생산 증가, 정부수입 발생, 소득은 소비자에서 생산자·정부로 이전되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5. 신용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Negotiation Credit는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② Revolving Credit는 어느 한 국가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신용장이 수출국에서도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제한하는 신용장이다.

③ Back to Back Credit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동종의 물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한번 개설된 신용장의 효력이 사용 후 다시 갱신되는 신용장이다.

④ Standby Credit는 고객이 현지 은행에서 금융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 은행 앞으로 고객의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용장의 기능별 유형을 핵심 구조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Negotiation Credit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어음을 지정은행이 매입 또는 할인하는 신용장이다.
Acceptance Credit은 기한부어음을 은행이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신용장이다.
Revolving Credit은 일정 한도액이 사용될 때마다 다시 원상회복되어 반복 거래에 쓰이는 신용장이다.
Back to Back Credit은 수출상이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공급업자 앞으로 별도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Standby Credit은 채무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은행이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성 신용장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인수은행은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Negotiation Credit이 아니라 Acceptance Credit의 설명이다. Negotiation Credit은 은행이 서류와 어음을 매입 또는 할인하는 구조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제한"이라는 부분이다. Revolving Credit은 상대국에서 대응 신용장을 다시 여는 방식이 아니라, 한도액이 자동으로 복원되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한번 개설된 신용장의 효력이 사용 후 다시 갱신"되는 구조를 Back to Back Credit이라고 한 점이다. 이런 구조는 Revolving Credit의 설명이다. Back to Back Credit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별도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4번: O. Standby Credit은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은행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 기능의 신용장이다. 거래은행이 현지 은행이나 거래상대방 앞으로 고객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신용장 명칭의 영어 단어만 보고 외우면 틀리기 쉽다. 1번은 negotiation과 acceptance를 바꿔 놓았고, 2번과 3번은 revolving의 반복 사용 기능을 다른 유형의 설명과 뒤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은행이 하는 기능이 매입인지 인수인지 보증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신용장이 반복 사용되는 구조인지, 원신용장을 담보로 새 신용장을 여는 구조인지 확인하면 유형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Negotiation은 매입, Acceptance는 인수, Revolving은 회전, Back to Back은 원신용장 담보 연계, Standby는 채무불이행 보증이다.

NoteBase

문 6.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의 본문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는 좌초, 침몰, 투하가 있다.

②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갑판유실을 담보한다.

③ 물적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④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위통지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차이, 손해방지비용의 보상범위, 추정전손에서의 위부통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구협회적하약관(ICC 1963)은 전통적 해상위험과 별도 열거위험을 함께 다루는 구조이고, 신협회적하약관(ICC 2009)은 A·B·C 조건별 담보범위를 더 명확하게 나눈다.
ICC(B)는 ICC(C)의 기본 담보위험에 더해 갑판유실, 해수 등의 유입, 지진·화산·낙뢰 등을 추가로 담보한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물적손해 보상액과 별도로 문제된다.
추정전손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해야 전손보험금 청구 구조가 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투하를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본다"는 점이다. 좌초와 침몰은 전형적인 해상사고이지만, 투하(jettison)는 공동의 안전을 위해 화물을 버리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상 고유의 위험 그 자체로 묶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좌초, 침몰은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지만 투하는 별도의 열거위험 또는 공동해손희생으로 이해한다"이다.
2번: O. ICC(B)는 ICC(C)의 담보위험에 몇 가지 위험을 추가한 조건이고, 그 추가위험 중 하나가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이다. 따라서 ICC(C)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갑판유실을 ICC(B)가 담보한다는 설명은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손해방지비용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이므로 물적손해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손해방지비용은 물적손해보상액과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대위통지"이다. 추정전손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해야 하는 것은 대위통지가 아니라 위부통지이다. 올바르게는 "추정전손이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투하를 좌초·침몰과 같은 해상사고로 섞어 놓아 위험의 성격 구분을 흐리게 만든 선지이다. 3번은 손해방지비용을 일반 손해보상 한도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틀리고, 4번은 추정전손에서의 핵심 용어인 위부통지를 대위통지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상보험 선지는 먼저 약관별 담보위험을 나누고, 다음으로 비용조항인지 전손처리 절차인지 구분하면 된다. ICC(B)와 ICC(C)는 추가담보 유무를 비교하고, 추정전손이 나오면 곧바로 위부통지를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ICC(B)=ICC(C)+갑판유실, 손해방지비용=별도 보상 가능, 추정전손=위부통지이다.

NoteBase

문 7.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서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의 국가와 2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② 국가 간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③ 각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④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전제하는 기본 가정과 다른 무역이론의 가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국가별 노동생산성 차이에서 비교우위가 생기고, 각국이 비교우위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2국 2재 체계, 생산요소는 노동만 존재, 노동투입계수는 일정,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해 보수불변, 생산요소는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2국 2재 모형은 리카도 비교우위론의 대표적 기본 가정이다. 두 나라가 두 재화를 생산한다고 단순화하여 비교우위를 설명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국가 간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표현이다. 리카도 모형에서는 생산요소인 노동이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국가 간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각국은 비교우위 재화에 특화한다"이다.

③ O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 자본이나 토지는 기본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O
리카도 모형은 노동투입계수가 일정하고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해 보수불변이라고 본다.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필요한 노동량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자유무역과 생산요소 자유이동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리카도 모형은 재화의 국제교역은 허용하지만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은 가정하지 않는다. 생산요소 부존과 다요소 모형은 헥셔-올린 모형 쪽 특징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카도 비교우위론 선지는 먼저 "2국 2재 1노동"과 "국가 간 요소이동 없음"이라는 핵심 문구를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선지에 자본·토지 같은 복수 생산요소나 국가 간 요소이동 자유가 나오면 리카도의 기본 가정과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는 2국 2재 1노동, 국제 요소이동 없음, 노동생산성 차이에서 비교우위가 나온다고 정리된다.

NoteBase

문 8.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지마이론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국에서 이미 비교열위에 있거나 비교열위화되고 있는 한계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현지국에서는 현재 또는 잠재적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시 기업 특유의 우위, 내부화 우위, 투자진출국의 입지특유 우위 등의 세 가지 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③ 절충이론은 특정 국가가 보유한 기술 및 소득수준의 차이와 제품의 시장국별 도입 시기의 차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과점적 경쟁 이론은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 거래를 기업조직내로 내부화함으로써 경쟁력이 갖추어져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직접투자 주요 이론의 대표 설명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지마이론: 무역지향적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 투자국에서는 비교열위 산업이 해외로 이전되고 현지국에서는 비교우위 또는 잠재적 비교우위 산업이 육성된다고 본다.
제품수명주기이론: 버논의 이론으로, 신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된 뒤 성숙 단계로 가면서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된다고 본다.
절충이론: 더닝의 OLI 패러다임으로, 기업특유 우위·입지특유 우위·내부화 우위가 함께 충족될 때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과점적 경쟁이론: 과점산업에서 한 기업의 해외진출이 경쟁기업의 추종적 해외직접투자를 유발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고지마이론은 투자국의 비교열위 산업이 현지국의 비교우위 산업과 결합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므로 선지의 서술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제품수명주기이론을 기업특유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특유 우위의 세 가지 우위로 설명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절충이론이 OLI 세 가지 우위를 종합해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도입·성장·성숙 단계에 따른 생산입지 이동을 설명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절충이론을 국가 간 기술 및 소득수준 차이와 시장 도입 시기 차이로 설명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런 설명은 제품수명주기이론에 가깝고, 절충이론은 소유우위·입지우위·내부화우위의 결합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과점적 경쟁이론을 외부 거래의 내부화로 설명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외부 거래를 기업 내부로 조직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설명은 내부화이론에 해당하고, 과점적 경쟁이론은 경쟁기업의 선행 투자에 대응하는 추종적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OLI, ③의 제품도입 시기, ④의 내부화처럼 각 이론의 대표 키워드를 서로 바꿔 끼운 점이 함정이다. 이론 이름은 익숙하지만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묶지 못하면 쉽게 혼동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론 문제는 문장 전체를 읽기 전에 대표 키워드부터 대조하면 빨라진다. 고지마는 비교우위·비교열위, 버논은 제품수명주기, 더닝은 OLI, 내부화이론은 거래의 내부화, 과점적 경쟁이론은 추종투자로 연결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고지마=비교우위 이전, 버논=제품수명주기, 더닝=OLI, 과점=경쟁자 추종이다.

NoteBase

문 9.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원본 서류와 사본(Original Documents and Copi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
ㄴ. 서류 자체에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원본임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처리한다.
ㄷ. 신용장에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전통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족된다.
ㄹ.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CP 600 제17조에서 원본과 사본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복수 부수 요구 문구를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본은 서류 자체에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되지 않는 한, 발행자의 원래 서명·마크·스탬프·라벨이 있거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타이핑·천공서명·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된다.
사본 제시는 신용장이 사본을 요구할 때 원본 또는 사본으로 충족할 수 있다.
"in duplicate", "in two folds", "in two copies"는 전통적 원본 2통을 뜻하지 않으며, 서류에 달리 표시가 없으면 적어도 1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으로 충족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사본 제시를 요구한 경우 원본이나 사본 모두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ㄴ도 원본이 아님이 표시되지 않았고 발행자의 원래 서명·마크·스탬프·라벨이 있으면 원본으로 취급하므로 옳다. 그러나 ㄹ도 옳으므로 ①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을 포함해야 한다.
② X: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②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전통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족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적어도 1통의 원본과 나머지 수량의 사본으로 충족된다.
③ O: ㄱ은 사본 요구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는 내용이라 옳다. ㄴ은 발행자의 원래 서명·마크·스탬프·라벨이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 본다는 내용이라 옳다. ㄹ은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타이핑·천공서명·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는 내용이라 옳다. 반면 ㄷ만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 모두 고른 선택지는 ③이다.
④ X: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④는 오답이다. ㄷ이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ㄷ을 제외한 ㄱ, ㄴ, ㄹ의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복수 부수 요구 문구를 보면 원본 여러 통을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ㄷ의 "전통의 원본만"이라는 과장된 표현이다. UCP 600은 복수 부수 요구를 1통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으로도 충족시키므로 ㄷ에서만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본·사본 문항은 먼저 사본 요구 시 원본 허용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원본 인정 표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in duplicate"류 문구의 의미를 본다. "사본 요구 → 원본도 가능", "원본 표시 없음 + 발행자의 원래 표지 있음 → 원본", "duplicate류 → 원본 1통 + 나머지 사본"으로 정리하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UCP 600 제17조는 사본 요구에도 원본 제시가 가능하고, duplicate류 문구는 원본 여러 통이 아니라 원본 1통과 나머지 사본으로 본다.

NoteBase

문 10. 리스트(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후진국은 공업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영국과 독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독일이 계속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영국의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유치산업을 지정하여 보호 및 육성하고, 보호정책 수단은 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였다.

④ 이 이론은 근대적인 산업부문의 육성을 열망하고 있던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서 후발공업국 보호의 필요성과 대표 보호수단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리스트는 후발공업국이 선진공업국과 즉시 자유경쟁을 하면 산업기반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무역 논리를 제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공업화가 미성숙한 후발국의 공업부문을 일정 수준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진국의 산업보호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다.

② O
리스트는 영국과 독일의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독일이 자유무역을 그대로 수용하면 영국 공산품의 판매시장으로 머물 수 있다고 보았다. 후발국의 산업화 기회 상실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보호정책 수단은 주로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유치산업 보호의 대표 수단이 관세장벽이며, 일정 기간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완화해 국내 공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④ O
리스트의 이론은 근대적 산업부문을 키우려던 후발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을 통해 공업기반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활용되었으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유치산업보호론의 정책수단을 관세장벽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보호무역 전반을 막연히 떠올리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리스트 논의의 대표 수단은 관세보호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트 문항은 후발국, 공업화, 한시적 보호, 관세보호라는 네 키워드로 판단한다. 보호를 영구화하거나 대표 수단을 비관세 중심으로 바꾸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리스트 = 후발국 공업화 + 한시적 관세보호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글로벌 가격정책은?

신제품 도입 초기부터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가격을 낮게 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신속하게 올리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가격 인하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이 큰 경우 효과적이다.

① cost-plus pricing policy
② mark-up pricing policy
③ market skimming pricing policy
④ market penetration pricing policy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제품 가격정책 중 시장침투가격정책과 시장스키밍가격정책, 원가기준 가격결정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침투가격정책은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수요를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키워드는 낮은 초기가격, 빠른 확산, 높은 가격탄력성이다.
시장스키밍가격정책은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혁신수요층부터 이익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키워드는 높은 초기가격, 단계적 인하, 낮은 초기 경쟁강도이다.
원가기준 가격결정인 cost-plus pricing과 mark-up pricing은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원가 기준, 목표이윤 가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cost-plus pricing policy는 총원가에 목표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설명처럼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낮게 시작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정책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신제품 초기 저가침투라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 이윤을 가산하는 가격정책이다.

② X
mark-up pricing policy는 보통 매입원가나 제조원가에 일정 비율의 가산액을 붙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역시 기준이 원가이므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 초기 저가와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활용한 침투전략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더하는 가격정책이다.

③ X
market skimming pricing policy는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층부터 이익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해 시장점유율을 신속히 높인다고 했으므로 정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낮게 제시하여 빠르게 보급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시장 상층부 수요를 흡수하는 가격정책이다.

④ O
market penetration pricing policy는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을 제시해 다수의 소비자를 빠르게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가격 인하에 대한 수요 반응이 클 때 특히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침투가격정책과 스키밍가격정책은 모두 신제품 초기 가격전략이지만, 침투는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스키밍은 높은 가격으로 초기이익 회수를 노린다는 점이 갈린다. 또한 ①과 ②는 모두 원가기준 가격결정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시장진입정책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제품 초기에 가격을 낮춰 보급 확대와 점유율 확보를 노리면 시장침투가격정책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초기에 가격을 높여 선도수요층에서 이익을 먼저 회수하면 시장스키밍가격정책으로 판단한다. 설명의 기준이 원가 가산인지 시장침투 전략인지 먼저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침투는 저가로 점유율, 스키밍은 고가로 초기이익, cost-plus와 mark-up은 원가 기준 가격결정이다.

NoteBase

문 12. 포터(M. Porter)의 다이아몬드 국가경쟁력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 토지, 천연자원, 자본 등의 부존량과 투입 기술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② 국가경쟁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정부의 역할과 기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③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활용해서 범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국제경쟁력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보았다.

④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수요조건은 외국 수요의 구성, 외국 수요의 크기와 성장패턴, 외국 수요의 국제화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국가경쟁력을 이루는 핵심 요인과 외생변수, 특히 수요조건이 국내 수요를 뜻한다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요소조건은 노동·토지·자본·자원·기술·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질과 축적 상태를 말하며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수요조건은 국내시장의 수요구성, 수요의 크기와 성장패턴, 국내 수요의 국제화가 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자극하는 조건을 말한다.
정부와 기회는 다이아몬드의 네 가지 본원적 요인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이다.
국제경쟁의 직접 주체는 국가 자체가 아니라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기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요소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포터는 노동, 자본, 천연자원 같은 요소의 보유 상태와 그 활용 수준이 산업 경쟁우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본다.
② O
정부와 기회는 다이아몬드 모형의 외생변수이다. 이들은 기업의 경쟁조건을 직접 구성하지는 않지만 국가경쟁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③ O
포터는 국제경쟁에서 실제로 경쟁우위를 만들고 세계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를 기업으로 본다. 국가는 경쟁환경을 제공하지만 경쟁행위의 직접 주체는 기업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외국 수요'이다. 포터의 수요조건은 외국 수요가 아니라 국내 수요의 구성, 국내 수요의 크기와 성장패턴, 국내 수요의 국제화를 뜻한다. 올바르게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수요조건은 국내 수요의 구성, 국내 수요의 크기와 성장패턴, 국내 수요의 국제화 등으로 구성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수요조건의 주체를 국내 수요에서 외국 수요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포터는 자국 내 까다롭고 앞선 수요가 기업 혁신을 자극한다고 보므로, 수요조건의 출발점은 외국시장이 아니라 국내시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포터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먼저 네 가지 본원적 요인인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을 떠올린다. 그다음 정부와 기회는 외생변수인지 확인하고, 수요조건은 외국 수요가 아니라 국내 수요인지부터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포터 다이아몬드의 수요조건은 외국 수요가 아니라 국내 수요이며, 정부와 기회는 바깥에서 작용하는 외생변수이다.

NoteBase

문 13. 자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가 나타나 수출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다.

②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가 오르게 된다.

③ 자국 기업이 해외로부터 외화를 빌린 경우 외채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④ 수출 증가로 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 상승이 자국 통화가치 하락, 즉 평가절하를 뜻할 때 수출입과 외화표시 부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환율 상승은 외화 1단위를 사는 데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뜻한다. 평가절하가 되면 수출품의 외화 기준 가격경쟁력은 좋아지고, 수입품과 수입 원자재의 국내 가격은 오르며,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선지별 해설

1번: O.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뜻한다. 자국 상품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므로 수출 물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된다.
2번: O.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같은 수입 원자재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3번: X. 틀린 부분은 "외채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이다. 실제로는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렸다면 같은 외화 원리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하므로 외채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4번: O. 평가절하로 수출이 늘면 생산 확대 유인이 커지고 고용과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환율 상승과 통화가치 상승을 같은 뜻으로 착각하면 ③을 옳다고 보기 쉽다. 이 문항의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 강세가 아니라 자국 통화 약세로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이 오르면 먼저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석한다. 그다음 수출은 유리, 수입물가는 상승, 외화표시 부채 부담은 증가라는 방향으로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환율 상승은 평가절하, 평가절하는 수출 유리·수입물가 상승·외화빚 부담 증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가), (나)에 들어갈 연계무역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은/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수출업자가, 제공된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에서 직접 파생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그 대가를 회수하는 거래형태이다.
○ (나)은/는 수출액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만큼 수입업자의 제품을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구매하는 거래형태로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거래형태이다.

① (가): 제품환매(Product Buy-back), (나):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② (가): 상계무역(Offset Trade), (나):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③ (가): 제품환매(Product Buy-back), (나):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④ (가): 상계무역(Offset Trade), (나):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연계무역의 세부 유형 가운데 제품환매와 대응구매를 정의 문장으로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품환매(Product Buy-back)는 기술·설비·플랜트를 수출한 뒤 그 설비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다시 인수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구매하되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은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여 대금을 상계하는 거래로, 보통 하나의 계약으로 묶인다는 점에서 대응구매와 구별된다.
상계무역(Offset Trade)은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포괄적 연계거래 개념이어서,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가를 회수하는 제품환매의 직접 정의와는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플랜트나 기술을 수출한 뒤 그 설비에서 직접 파생되거나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으로 대금을 회수한다고 했으므로 제품환매이다. (나)는 수출액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만큼 상대국 제품을 구매하고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고 했으므로 대응구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 상계무역"과 "(나) 구상무역"이다. (가)의 핵심은 설비 수출 후 그 설비의 생산물로 대금을 회수하는 점이므로 올바르게는 제품환매이다. (나)는 별도 계약을 전제로 한 two-way trade이므로 올바르게는 대응구매이다. 구상무역이라면 보통 하나의 계약으로 수출입을 연계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나) 구상무역"이다. (가)를 제품환매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나)는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된다고 했으므로 올바르게는 대응구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 상계무역"이다. (나)를 대응구매로 연결한 것은 맞지만, (가)는 기술·설비·플랜트 수출 후 그 생산물로 대가를 회수하는 형태이므로 올바르게는 제품환매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된다는 문구를 놓치면 대응구매와 구상무역을 뒤바꾸기 쉽다. 또한 (가)의 "플랜트에서 직접 파생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대가를 회수"한다는 문구를 읽지 않고 연계무역의 넓은 범주어인 상계무역으로 뭉뚱그리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플랜트·기술·설비를 먼저 수출하고 그 설비의 생산물로 회수하면 제품환매로 본다. 수출 후 상대국 물품을 일정 비율만큼 다시 사 주고 계약이 둘로 나뉘면 대응구매로 본다. 수출입 연계가 하나의 계약으로 상계되는 구조이면 구상무역 가능성을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생산물로 되사오면 제품환매, 별도 계약으로 다시 사 주면 대응구매이다.

NoteBase

문 15. 해외직접투자에서 합작투자 대비 단독투자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사 및 다른 자회사와 함께 통합적인 관리가 용이하며, 현지국에서 정보의 활용이나 상황대처에 유리한 점이 많다.

② 투자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타의 기업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기업활동에 대한 의사를 신속히 결정하여 해외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④ 투자자 자신만의 권리로 투자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에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의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독투자는 투자기업이 지분과 경영권을 단독으로 보유하여 의사결정, 통제, 이익 귀속을 독자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합작투자는 현지 또는 제3의 파트너와 자본과 위험을 분담하여 현지 정보, 유통망, 제도 대응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별 기준은 통제와 이익의 독점은 단독투자 쪽, 현지 정보 활용과 현지 적응은 합작투자 쪽이라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본사 및 다른 자회사와의 통합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은 단독투자의 장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지국에서 정보의 활용이나 상황대처에 유리'하다는 부분은 현지 파트너를 활용할 수 있는 합작투자의 장점이다.
틀린 표현은 '현지국에서 정보의 활용이나 상황대처에 유리'이다.
올바르게는 단독투자는 통합관리에는 유리하지만, 현지 정보 활용과 현지 대응은 합작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② O
단독투자는 외부 합작 파트너와 핵심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적으므로 기술, 노하우, 기업기밀의 누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③ O
단독투자는 공동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 해외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④ O
단독투자는 투자자가 지분과 경영권을 단독으로 보유하므로 투자 성과에 따른 이익을 독점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단독투자의 장점과 합작투자의 장점을 한 선지 안에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통합적 관리'라는 맞는 표현을 먼저 제시한 뒤 '현지 정보 활용과 상황대처'라는 합작투자의 장점을 붙여 전체 문장을 틀리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직접투자 방식 비교 문제는 먼저 통제권, 의사결정 속도, 기술보호, 이익 귀속은 단독투자에 연결하고, 현지 정보, 위험분담, 현지 네트워크 활용은 합작투자에 연결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한 선지에 서로 다른 방식의 장점이 혼합되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단독투자는 통제·속도·보안·이익독점, 합작투자는 현지정보·위험분담·현지적응이다.

NoteBase

문 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한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달리 합의한 것이 없고 동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을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매도인의 운송·부보·인도의무와 위험이전 후 부적합 책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뒤에도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운송매매의 인도장소와 인도시기의 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위험이전은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뜻한다.
부적합은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포장 등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부보는 운송 중 손해에 대비해 보험을 붙이는 것을 뜻한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때 이미 존재하던 부적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위험이전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서 비롯되면 책임을 진다.
운송을 수반하는 매매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인도는 제1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도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 어느 때나 인도할 수 있으나, 사정상 매수인이 날짜를 선택하는 구조라면 그 예외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도인이 운송에 관해 스스로 보험을 붙일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수인이 보험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선지는 CISG상 부보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구별하고 있어 옳다.

② X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이미 존재하던 부적합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또한 위험이전 후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틀린 표현: "그러한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올바른 표현: "그러한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위험이전 시 이미 존재하였으면 책임을 지며, 위험이전 후 발생한 부적합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면 책임을 진다"

③ O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행된다. 따라서 ③은 운송매매의 인도장소 원칙을 정확히 적고 있어 옳다.

④ O
인도기간이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 아무 때나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사정상 매수인이 특정 날짜를 선택하여야 하는 구조라면 매도인이 임의로 날짜를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도 옳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위험이전 후에 판명"과 "위험이전 후에 발생"을 같은 뜻으로 읽는 데 있다. ②는 드러난 시점만 보고 면책된다고 오해하게 만들지만, CISG는 위험이전 시 이미 있던 하자는 나중에 밝혀져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후 발생 하자도 매도인 의무위반 때문이면 책임을 인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선지는 먼저 문장이 묻는 축이 운송·보험·인도시기인지, 위험이전 후 하자책임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하자책임 선지는 "언제 존재했는지"와 "누구의 의무위반 때문인지"를 따로 판단하면 정답이 갈린다.

암기 포인트

CISG에서는 보험은 원칙적 의무가 아니라 정보제공 문제이고, 운송매매는 제1운송인 교부가 인도이며, 위험이전 후 판명만으로 매도인이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Open Account 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출자의 채권은 수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가 선적한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ㄴ. 외상거래방식으로 수입자의 신용도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ㄷ. 수출자는 수입자가 송금을 하기 전이라도 수출채권의 매각을 통해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ㄹ. 수출자는 수출채권의 매각을 위해 선적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해야 하며, 선적서류 원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Open Account 방식의 본질, 수입자 신용위험,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가능성, 은행 개입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Open Account는 수출자가 물품을 먼저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며, 수입자가 약정 기일에 나중에 송금하는 외상거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 신용위험을 크게 부담하므로 수입자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가 중요하다.
또한 수출자는 만기 전이라도 수출채권을 팩토링 등으로 매각하여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식은 Open Account의 전형적 구조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ㄷ의 조합인데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ㄱ의 틀린 표현은 '수입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Open Account는 물품 도착 시점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자가 먼저 선적하고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는 외상거래 구조이다.
- ㄷ은 맞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아직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수출채권을 매각하여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② X
- ②는 ㄱ, ㄹ의 조합인데 ㄱ과 ㄹ이 모두 틀려서 오답이다.
- ㄱ은 위와 같은 이유로 틀리다.
- ㄹ의 틀린 표현은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여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Open Account에서는 선적서류 원본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기 현금화가 필요할 때는 수출환어음 매입이 아니라 수출채권 양도 방식이 활용된다.

③ O
- ③은 ㄴ, ㄷ의 조합이고 두 진술이 모두 맞으므로 정답이다.
- ㄴ은 맞다. Open Account는 대표적인 외상거래이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의 결제능력과 신용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 ㄷ은 맞다. Open Account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은 팩토링 등으로 매각하여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하다.

④ X
- ④는 ㄴ, ㄹ의 조합인데 ㄴ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ㄹ은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한다는 부분만 맞고, 이를 위해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Open Account는 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 외상결제를 기본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학생들이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직접 보낸다'는 표현만 보고 ㄹ 전체를 맞는 문장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ㄹ은 앞부분의 '수출환어음 매입 의뢰'가 Open Account와 맞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또한 ㄱ의 '물품 도착과 동시에 채권 발생'도 도착시점을 끼워 넣어 헷갈리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Open Account가 나오면 먼저 '물건 선적이 먼저, 대금회수는 나중'이라는 외상거래 구조를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은행이 화환어음이나 추심서류를 중심으로 개입하는지, 아니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서류와 대금을 주고받는지를 기준으로 선지를 가르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Open Account는 서류는 직접 송부, 대금은 나중 회수, 위험은 수출자 부담, 현금화는 채권매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해상적하보험에서 선의의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초과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③ 전부보험의 경우 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실손해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상적하보험의 일부보험, 초과보험, 전부보험, 중복보험에서 보상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보험으로, 손해가 나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한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이지만, 손해보험이므로 실제 보상 한도는 보험가액을 넘지 않는다.
전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은 보험으로, 분손이면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전손이면 보험가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중복보험은 같은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겹친 경우로, 각 보험자가 따로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손해액 범위에서 분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상태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비례보상을 한다.
② O: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크게 정해져 있어도 손해보험이므로 전손 시 보상은 실제 보험가액 전액까지 가능하다.
③ O: 전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일치하므로 분손이 발생하면 그 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계약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이다. 중복보험에서는 각 보험자가 자기 계약액 전부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손해액을 한도로 각 보험자가 분담하여 보상한다.

오답 포인트

중복보험을 여러 계약이 있으니 여러 보험사에서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오해하기 쉽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이 작동하므로 중복보험이어도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를 먼저 본다. 보험금액이 더 작으면 일부보험, 같으면 전부보험, 더 크면 초과보험이다. 계약이 여러 개인지는 중복보험으로 따로 보고, 중복보험은 언제나 전체 실손해액 한도 내 분담보상이라는 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부보험은 비례보상, 초과보험은 보험가액 한도, 전부보험은 실손해 보상, 중복보험은 실손해액 범위 내 분담보상이다.

NoteBase

문 19.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위탑재용기운임(bulk unitization charge)은 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단위로 적용하는 요금으로 IATA에서 규정한 단위탑재용기 종류별로 상이한 운임이 적용된다.
ㄴ. 일반화물요율(general cargo rate)은 품목분류 또는 특정 품목할인의 적용을 받는 화물을 포함하여 모든 화물의 운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다.
ㄷ.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은 운송장상에 화물의 가격을 신고하고 사고 발생 시 최대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실손해액을 배상받고자 지불하는 운임이다.
ㄹ.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는 수하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선불한 비용을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공화물 운임의 종류별 적용 대상과 부가요금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위탑재용기운임(BUC)은 컨테이너나 팔레트 같은 ULD 단위로 적용하는 운임이다.
일반화물요율(GCR)은 특정품목요율(SCR)이나 품목분류요율(CCR, class rate)이 따로 배정되지 않은 일반 화물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이다.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은 운송장에 신고가액을 적어 운송인의 통상 책임한도를 넘는 배상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는 운임이다.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는 항공사가 선지급한 부대비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붙는 advance charges 관련 수수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ㄷ이 모두 옳으므로 맞는 선택지이다. ㄱ의 BUC는 항공사가 송하인이나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단위로 적용하는 운임이라는 설명이 맞다. ㄷ의 종가운임도 운송장상 신고가액을 통해 책임한도 초과 배상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는 운임이라는 점에서 맞다.

② X
ㄱ은 옳지만 ㄹ이 틀려서 전체가 틀리다. 틀린 부분은 ㄹ의 "수하인의 요구에 따라"와 "송하인으로부터 징수"라는 표현이다. disbursement fee는 advance charges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로 보는 것이 맞고, 이를 수하인 요청에 따라 선불한 비용을 송하인에게서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전체가 틀리다. 틀린 부분은 ㄴ의 "품목분류 또는 특정 품목할인의 적용을 받는 화물을 포함하여 모든 화물"이라는 표현이다. GCR은 모든 화물에 무조건 적용되는 요율이 아니라 SCR이나 CCR이 배정되지 않은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기본요율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틀린 선택지이다. ㄴ은 GCR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고, ㄹ은 disbursement fee의 징수 구조를 잘못 설명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GCR을 모든 화물에 일괄 적용되는 만능 기본요율로 외우면 ㄴ에 속기 쉽다. 또한 disbursement fee를 선지급 비용 자체와 혼동하면 ㄹ도 맞는 설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advance charges를 회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항공화물 운임 문제는 먼저 기본요율인 GCR인지, 특정품목요율인 SCR이나 품목분류요율인 CCR이 우선하는 상황인지를 본다. 그다음 종가운임은 신고가액에 따른 추가배상, disbursement fee는 advance charges 회수수수료로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GCR은 예외 없는 만능요율이 아니고, 종가운임은 신고가액 추가배상, disbursement fee는 advance charges 회수수수료이다.

NoteBase

문 20. 국제경영전략 중 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원가와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다.

② 기업은 제휴 파트너의 유통망 활용, 기존 생산 설비를 이용하는 등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활용한다.

③ 기업이 시장에 진입 또는 퇴거가 유리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

④ 일반적으로 전략적 제휴는 기술, 조달, 생산, 판매제휴로 분류하는데, 제휴기업들 간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세컨드 소싱(Second sourcing) 등은 조달제휴에 속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략적 제휴의 활용 목적과 기능별 유형, 특히 조달제휴와 생산제휴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략적 제휴는 둘 이상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비용, 위험, 자원, 시장 접근을 공유해 경쟁우위를 높이려는 협력관계이다.
조달제휴는 원자재·부품의 공동구매, 물류망 공유처럼 투입요소를 더 유리하게 확보하는 제휴이다.
생산제휴는 공동생산, OEM, 위탁생산, second sourcing처럼 상대 기업의 생산능력이나 생산체계를 활용하는 제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략적 제휴의 대표적 목적 중 하나는 비용과 위험의 공동부담이다. 단독 투자보다 부담을 분산해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제휴 파트너의 유통망, 생산설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신규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시간 단축과 초기 투자 절감은 전략적 제휴의 전형적 이점이므로 옳다.
③ O: 시장 진입이나 철수가 유리한지 불확실할 때 전략적 제휴는 전면 투자보다 낮은 위험으로 시장을 시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불확실성 하의 유연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OEM, 세컨드 소싱 등이 조달제휴에 속한다'는 표현이다. OEM과 second sourcing은 생산능력 활용, 위탁생산, 공급분담과 관련되므로 생산제휴에 가깝다. 조달제휴의 전형은 공동구매나 공동물류이며, 이 선지는 'OEM, 세컨드 소싱 등은 생산제휴에 속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조달제휴와 생산제휴는 모두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무엇을 사 오거나 조달하는가'가 중심이면 조달, '누가 만들어 공급하는가'가 중심이면 생산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략적 제휴 유형 문제는 기능 기준을 먼저 잡으면 된다. 기술은 지식·특허, 조달은 공동구매·물류, 생산은 OEM·공동생산·위탁생산, 판매는 유통망·공동마케팅으로 연결하면 선지의 귀속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동구매는 조달, OEM·세컨드 소싱은 생산이다.

NoteBase

문 21.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PU 조건에서 거래당사자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로서 화물터미널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어느 장소든 지정 가능하다.

② EXW 조건은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③ 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당사자와 관련하여 비용부담자와 위험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에는 CFR, CIF, CIP, CPT 조건이 있다.

④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20에서 각 조건의 인도장소, 적재의무, 비용부담과 위험이전, 보험의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DPU는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목적지는 터미널에 한정되지 않는다.
EXW는 매도인 영업장 등에서 수출통관 전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통상 상차의무가 없다.
CFR·CIF·CPT·CIP는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또는 제1운송인 인도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C군 조건이다.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CIF와 CIP에만 있으며, FAS는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두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DPU는 기존 DAT를 바꾼 조건으로, 목적지가 터미널뿐 아니라 지정된 모든 장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국의 어느 장소든 당사자가 합의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2번: O. EXW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두면 인도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출통관의무가 없고,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 맞다.
3번: X. 비용부담자와 위험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을 묻는다면 CFR, CIF, CPT, CIP가 맞지만, 보험계약 체결의무까지 포함하면 CIF와 CIP만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당사자와 관련하여"와 CFR·CPT까지 함께 든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비용부담자와 위험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는 CFR, CIF, CPT, CIP가 있고,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CIF와 CIP에만 있다"이다.
4번: O. FAS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두면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Incoterms 2020은 매도인이 이미 선측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방식도 인정하므로 선지는 맞다.

오답 포인트

3번은 C군 조건의 공통점인 "운송비는 매도인 부담, 위험은 더 이른 시점에 이전"이라는 구조와 보험의무를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C군 네 조건 전체와 보험의무가 있는 두 조건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대로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ncoterms 문제는 먼저 운송방식 제한 여부를 보고, 다음으로 인도장소와 위험이전 시점을 잡은 뒤, 마지막으로 운송계약·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만 따로 확인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CFR·CIF·CPT·CIP는 비용과 위험이 갈리고, 보험은 CIF·CIP만 부담한다.

NoteBase

문 22. 에드워드 홀(E. Hall)은 고맥락 또는 고배경(High Context)과 저맥락 또는 저배경(Low Context)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 차이를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고맥락 또는 고배경 문화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쟁입찰이 흔하지 않다.

② 정보 전달이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③ 법률적인 서류와 같은 계약을 강조한다.

④ 조직에서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직접 관련된 최하위층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홀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차이, 즉 관계·암묵성 중심인지 아니면 명시적 언어·문서 중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맥락 문화는 공유된 관계와 상황 맥락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문화이다 / 결정 차이축: 의미를 말 바깥의 관계·상황에서 얼마나 읽는가 / 키워드: 암묵성, 신뢰, 관계중심, 비공식성
저맥락 문화는 메시지 내용을 말과 문서로 명확히 드러내는 문화이다 / 결정 차이축: 의미를 말과 문서에 얼마나 직접 싣는가 / 키워드: 명시성, 직접성, 계약, 개인책임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쟁입찰이 흔하지 않다는 진술은 맞다. 고맥락 문화는 거래 상대와의 장기적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므로 공개적 경쟁입찰보다 기존 관계망이나 신뢰 기반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흔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구체적인 대화'이다. 고맥락 문화의 정보 전달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말보다 암묵적 신호, 관계, 상황 맥락에 많이 의존한다. 올바르게는 '정보 전달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은 저맥락 문화의 특징이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법률적인 서류와 같은 계약을 강조한다'이다. 문서계약과 명문화는 저맥락 문화의 대표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고맥락 문화는 법률 문서보다 상호 신뢰와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책임과 직접 관련된 최하위층에게 책임이 전가된다'이다. 책임을 개인 단위로 명확히 추적해 직접 귀속하는 방식은 저맥락 문화 쪽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고맥락 문화는 책임을 관계와 조직 맥락 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고맥락·저맥락은 의사소통 방식만이 아니라 거래 방식과 책임 귀속 방식에도 이어진다. ②의 직접적 대화, ③의 문서계약, ④의 명시적 개인책임은 모두 저맥락 키워드인데 이를 고맥락 특징처럼 뒤집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관계, 신뢰, 암묵적 이해, 비공식 합의가 나오면 고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지에 구체적 언어, 문서계약, 직접적 책임 귀속이 나오면 저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고맥락은 관계·눈치·신뢰이고, 저맥락은 말·문서·명시성이다.

NoteBase

문 23. 키간(W. Keegan)의 국제제품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가)에 들어갈 용어는?

(가) 전략은 생활문화 환경이나 관습 등으로 인해 자국시장과 비슷한 욕구나 효용을 다른 제품으로부터 얻을 경우 유용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상의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으나, 제품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대량생산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

①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확대
②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확대
③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적응화
④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적응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키건의 국제제품전략에서 제품 적응화와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결합한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확대는 제품과 메시지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확대는 제품은 현지에 맞게 바꾸되 메시지는 크게 바꾸지 않는 전략이다.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적응화는 제품은 그대로 두고 메시지만 현지화하는 전략이다.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적응화는 제품과 메시지를 모두 현지에 맞게 바꾸는 전략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확대는 제품 변경 비용이 거의 없고 대량생산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유형이다. 지문처럼 제품 변경 비용이 추가되고 대량생산의 이점을 얻기 어렵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제품 확대이다. 올바르게는 제품 적응화가 되어야 한다.
2번 O: 생활문화나 관습 때문에 비슷한 욕구를 다른 제품 형태로 충족해야 하면 제품은 현지화해야 한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메시지를 그대로 쓰는 커뮤니케이션 확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확대가 맞다.
3번 X: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적응화는 제품은 그대로 두고 메시지만 바꾸는 유형이다. 이 경우 제품 변경 비용이 추가되지 않고,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적응 비용이 든다. 틀린 표현은 커뮤니케이션 적응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커뮤니케이션 확대이다.
4번 X: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적응화는 제품과 메시지를 모두 현지화하므로 제품 변경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변경 비용이 함께 든다. 지문은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을 말하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커뮤니케이션 적응화이다. 올바르게는 커뮤니케이션 확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제품 축과 커뮤니케이션 축을 따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외우다가 2번과 3번을 자주 뒤바꾼다. 지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이 보이면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먼저 확정되고, 제품 변경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면 제품 적응화가 확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메시지를 바꾸는지 그대로 두는지를 본다. 커뮤니케이션 비용 절감이면 커뮤니케이션 확대이다. 다음으로 제품을 바꾸는지 본다. 현지 욕구를 다른 제품 형태로 충족하고 제품 변경 비용이 들면 제품 적응화이다. 두 축을 교차하면 정답이 나온다.

암기 포인트

메시지 비용 절감은 커뮤니케이션 확대, 제품 변경 비용 발생은 제품 적응화이다.

NoteBase

문 24. 개품운송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부정기선 운송에 주로 이용된다.
ㄴ. 별도의 운송계약서 없이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이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빙 역할을 하게 된다.
ㄷ. 일정 기간 또는 특정 항해에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ㄹ. 운송인이 제시한 계약 내용을 송하인은 포괄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의 성격을 지닌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품운송계약의 성격을 용선계약과 구별하고, 선하증권의 기능과 부합계약 성격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별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항해에 선박이나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선하증권은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빙이 되며, 거래 실무에서는 표준약관 중심이어서 부합계약 성격이 강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1번은 ㄱ과 ㄷ이 모두 옳아야 성립하는 조합인데 둘 다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의 핵심 오류는 '부정기선'이다. 다수의 송하인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은 개품운송계약이 주로 이용되는 정기선 운송의 특징이다. ㄷ의 '일정 기간 또는 특정 항해에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은 개품운송계약이 아니라 용선계약의 설명이다.
2번 X: 2번은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은 '부정기선 운송'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정기선 운송에 주로 이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ㄹ은 운송인이 제시한 약관을 송하인이 포괄적으로 수락하는 부합계약 성격을 설명하므로 옳다.
3번 X: 3번은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ㄴ은 별도의 장황한 계약서 없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빙이 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반면 ㄷ은 선복 제공 계약을 설명한 것이어서 용선계약의 내용이다.
4번 O: 4번은 ㄴ, ㄹ만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ㄴ은 개품운송계약에서 선하증권이 수행하는 증빙 기능을 설명한 것이고, ㄹ은 표준약관 중심의 부합계약 성격을 설명한 것이다.

오답 포인트

ㄱ은 '혼재 운송'이라는 문구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함정은 '부정기선'에 있다. 또 ㄷ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이라는 표현 때문에 개품운송계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표현은 용선계약을 가르는 핵심 문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상운송계약 문제는 먼저 개별 화물 운송 인수인지, 선박 또는 선복 제공인지로 구분하면 된다. 개별 화물 운송 인수이면 개품운송계약이고, 기간이나 항해 단위의 선복 제공이면 용선계약이다. 선하증권이 보이면 개품운송계약의 증빙 기능과 부합계약 성격을 함께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 선하증권, 부합계약이고, 용선계약은 기간·항해·선복 제공이다.

NoteBase

문 25.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환시장은 외환 거래자들끼리 은행을 딜러로 하여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하는 장외거래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②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은행과 은행 사이에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은행 간 거래보다는 은행과 일반고객 사이에 소매로 이루어지는 대고객 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③ 시간대를 달리하는 세계의 금융시장들이 시차를 두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열려 있게 된다.

④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외환은 사는 가격인 매입률과 파는 가격인 매도율이 있으며, 이러한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환시장의 기본 구조와 은행 간 거래, 장외거래, 24시간 거래, 스프레드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환시장은 특정 거래소에 모여서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은행과 외환거래 당사자들이 전화나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거래하는 장외시장이다.
외환거래의 중심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은행 간 거래이다.
스프레드는 금융기관의 외환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외환시장은 거래소 중심의 집중시장이 아니라 거래당사자들이 은행을 매개로 전화나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는 장외시장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은행과 일반고객 사이에 소매로 이루어지는 대고객 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표현이다. 외환시장의 거래 비중은 일반고객 대상 소매거래보다 은행 간에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은행 간 거래가 더 크다.
③ O :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외환시장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므로 외환시장은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이어진다.
④ O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외환을 사는 가격이 매입률이고 파는 가격이 매도율이며, 이 둘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오답 포인트

외환시장을 은행 창구에서 개인이 환전하는 장면으로만 떠올리면 ②처럼 대고객 거래가 중심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시장 규모 기준으로는 은행 간 거래가 핵심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환시장 문제는 먼저 거래 장소가 거래소인지 장외인지, 거래 주체가 은행 간인지 대고객인지, 가격 개념이 매입률·매도율·스프레드 중 무엇인지를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외환시장은 장외시장, 거래의 중심은 은행 간 거래, 가격차는 스프레드이다.

NoteBase